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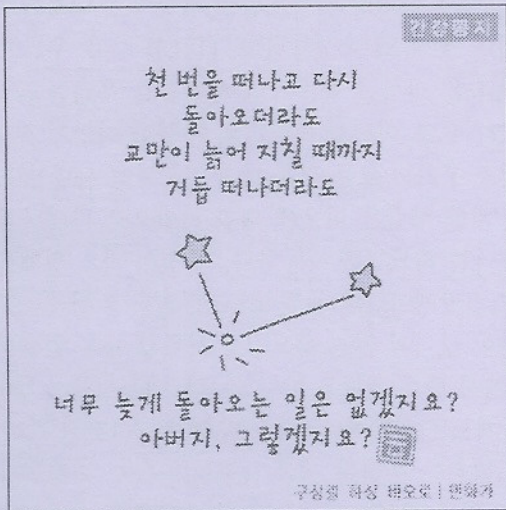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 4주일
제29권 4호(나해) 2008.12.21

[묵상]



대림환에 꽃혀 있는 네 개의 초가
모두 빛을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은 '기다림과 준비'였다.
두 번째의 이름은 '회개와 세례'였고,
세 번째 장밋빛 촛불은 '기쁨과 희망'이었으며,
오늘 밝힌 네 번째 흰색 촛불의 이름은
'하느님의 간청과 사람의 순명'이다.
지고(至高)의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간청을 드린다.
사람의 얼굴과 그의 육(肉)을 취하기 위해서다.
왜 그런 일을 하느님은 하시려는 것일까?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 말고는 그 어떤 말도 답이 될 수 없다.
하느님의 간청을 거부하지 않는 자
그는 그 사랑을 아는 자이니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며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는 종의 주인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아는 자의 자유로운 순명이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황인순 안젤라
특전미사	(생)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율리아, 김원모 웬델리노와 현숙 체칠리아, 김병태 요셉과 마리아 가정, 고천용과 고규제 체칠리아, 윤희동 안토니오와 남열 세라피나, 최기남 야고보와 옥희 테레사, 김일선 베드로와 테레사,시몬,헤진 요한 가정
주 일	(연)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이종무 바오로와 박순자 테레사, 심원섭 아오스딩, 김영식, 김장순, 노향애 안나, 하현일 요셉, 김현자, 김맹금 마리아, 김동욱 요아킴, 박한서 아오스딩, 이봉용, 고옥선, 박수권 스테파노
낮 미사	(생)김수환 추기경, 이종민 요셉, 김유스티노 가정, 이대영과 명자 로사 가정, 이석제 베드로 가정, 김서량 토마스와 그레이스 가정,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유선영 클라라, 권진열 피네스 가정, 김미연과 필호 가정, 오연주 마리아 고레피, 엄정자 분다, 김기정 루치아, 민형기 바로로 가정, 백지자 세레나, 이영희 카타리나, 김창옥 마리아, 차봉관 로베르토 가정, 이명렬 라파엘과 명순 크리스티나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 박상대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 7,1-5.8ㄷ-12.14ㄱ.16
화답송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전례서가 61, 대림 제4주 나해>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입으로 그 진실하심을 대대에 전하리라. 영원한 사랑을 이룩했노라 하시며, 주는 진실하심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나는 내가 뽑은 자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길이 네 후손을 굳건히 하여, 대대로 네 왕좌를 튼튼히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나를 향하여, 당신은 내 아버지 내 하느님 내 생명의 바위라 하리라. 은총을 영원토록 그에게 내리리니, 그에게는 내 계약이 굳게 남아있으리라.◎
제 2독서	로마서 16,25-27
복음	◎알렐루야.
환호성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복음	루카 1,26-38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30	129
봉헌	400	188,255
성체	하느님 그리고 나	287,298
파견	124	133

21.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

▶ 사랑의 삶 - 애덕(愛德)

우리는 하느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
기 때문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온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에 달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
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1요한 4,9). 우리를 위
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
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
런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
련이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
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
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요한 4,20) 그
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
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범을 따라 원수까
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그 악을 이겨 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
고 말할 수 있다.

▶ 신, 망, 애덕의 완전한 삶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하고 당부하셨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1요한 4,8), “사
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기(골로 3,14) 때문에 그리스도
인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삶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완성이다. “사
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1요한 4,18)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
리의 생활에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두려움도 근심걱정도 없이
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완
전한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연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이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정신을 더욱 깊게 심어 주실 것이
다.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
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고린 13,13)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믿음으로 하
느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느님의 구원 약속에 굳은 희망을 갖
게 되며, 마침내 하느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뿌리로 하고 희망을 줄기와 가지로 한 나무가 되어 사랑의 열매
를 맺어야 할 것이다. (◆CBCK 제공 - 계속)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 오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된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정 - 분노 - 흥정 - 우울 - 수용의 단계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그럴 리가 없어. 이 검사는 잘못된 거야!” 이어서 분노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하느님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도 분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흥정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주님, 낮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흥정도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부정도 분노도, 흥정도 우울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패배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이 다섯 단계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도 발견됩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혼란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사건입니다. 약혼이 파기될 수도 있고, 율법에 따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

습니다. 마리아도 흥정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은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고뇌와 갈등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위대함이 발휘됩니다. 남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분노하고, 흥정하고 우울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는 앞으로 한 걸음 크게 내딛고 있습니다(百尺竿頭進一步 백척간두진일보). 위대한 수락과 수용의 순간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들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리아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송두리째 맡겨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참으로 믿음으로써 얻고,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것인가 봅니다. 믿음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백색의 마음! 그래서 오늘 대림 4주일에 우리는 흰색의 초에 환하게 불을 켜었습니다.

◆박성철 미카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중철 아브라함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배재일 미카엘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주님 어서 오소서! ✦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분!
임마누엘! 당신이 저기 오시니
마당에 꽃바구니 걸어놓고 마중나갑니다.

- ◆ 성탄전야미사 & 목요교리반 세례식 : 24일(수) 오후 9시
- ◆ 성탄대축일 : 25일(목) 학생미사 오전 9시30분
대축일 미사 오전 11시
- ◆ 송년미사 : 12월31일(수) 오후 9시
-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월1일(목), 오전11시
* 평일(수/목) 미사 시간대가 저녁 7시30분으로 환원됐습니다.

◆ 백삼위 청년회 배론의 밤

우리 본당 토요 특전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배론 청년회가
송년모임 '배론의 밤'을 오늘(20일) 특전미사 후 오후 8시
30분부터 강당에서 갖습니다. 많이들 참석해서 기쁜 시간 갖
기 바랍니다.

◆ 성탄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천교장,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1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계시판 안내 참조
※ 이번 대청소에는 토요특전, 주일아침미사, 학생미사에 나
오시는 신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고 최정보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정충로 안토니오 형제(숙경 카타리나, 토런스 동 3반)의 모친
이신 최정보 님이 12월19일 한국에서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85세. 고인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연 도 : 오늘 주일(21일) 대청소 마친후 성전

☉ 축하합니다. ☉

오는 24일 성탄전야에 23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성사를 받
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이 성사로써 그리스도인
이요, 교회의 일원이 된 새 영세자들에게 한껏 축하를 드립니다.
♡곽인화 체칠리아 ♡김진숙 글라라 ♡박미선 사라 ♡박진숙 로사
♡박채원 카타리나 ♡신승성 라파엘 ♡이경훈 루카
♡장승원 알렉시오 ♡주용순 모니카 ♡차보영 아델라
♡차혜빈 마리스텔라 ♡차혜우 리카르도 ♡윤화경 바오로
♡정현영 엘리사벳 ♡정원재 안토니오 ♡정원영 안드레아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최부경 아네스 ♡최준민 마르코
♡김준하 엘리사벳 ♡김이랑 미카엘라 ♡김하늘 라파엘
♡김진숙 아델레이나
* 세례예정자와 대부모님들은 24일 오후 8시30분까지 2층
예비자교리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 사목상임위원회 및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전임원 송년모임
12월 사목상임위원회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전임원 송년회
가 아래와 같이 열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
기 바랍니다.

- 일시 : 12월26일(금) 오후 7시
- 장소 : 강당

◆ 유아세례식

- 일시 : 12월27일(토) 오후 6시
- 대부모님 필히 참석해주세요.
- 세례 신청서는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백삼위 본당 성탄축하 잔치 소공동체 구역대항 장기자랑

- 일시 : 12월28일(주일) 낮미사 후 오후 1시부터
- 정연종목 : 지정곡(전례성가 142,144,146 중 택일),
자유곡, 성탄절꾸미기(Express Expression)
- 상금 : 1등 \$500, 2등 \$300, 3등 \$200, 참가상 \$10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21일(주일) : 토런스 북 1/2반 (소고기국밥 \$3)
- 12월28일(주일) : 각 구역별로 마련한 점심을 나눕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김성현	김양금	김 욱
	김원호	김 은	김종환	김형순	민봉식	박기돈
	박수익	박영식	박의혜	반비오	신순철	안연숙
	안태갑	엄세종	오 진	우영희	유근태	유희연
	육근주	이병찬	이일길	이일형	이재용	임현기
	장영우	정규숙	정명모	정순석	정연영	정열모
	정충로	조윤영	조준제	최길주	최미열	최원석
	한혁수	홍기주	황인종			
				합계 :	\$7,000	
	미사헌금 : \$2,774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김성현	김양금	김 욱
	김원호	김종환	김형순	민봉식	박기돈	박수익
	반비오	신순철	안연숙	안태갑	엄세종	우영희
	유희연	육근주	이병찬	이일형	이재용	임현기
	장영우	정규숙	정순석	정연영	정열모	정충로
	조윤영	조준제	최길주	최미열	최원석	한혁수
	황인종					
합계 : \$4,990						
감사헌금 : 엄세종, 윤자열, 안연숙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고등부 바이블 스타디(성경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룸 7
- 대상 : 9학년~12학년(주일학교)
- 지도교사 : 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베로니카
- 방학 : 12월26일(금), 1월2일(금)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겨울방학 : 12월28일(주일), 1월4일(주일) 수업 없습니다.

◆ 새해(2009년/기축년/나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하늘에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한 2009년 본당 달력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립니다. 내용은 프랑스의 유명한 성당과 수도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 한 가정당 1부씩(성물판매대와 사무실)
-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2부 가져가세요.

◆ 안나회 동전 모으기 기금 전달

- 안나회가 올 1년간 주일미사 전에 모금한 동전모으기 통을 개봉했습니다. 총 \$1,794이 모였습니다.
- 보내는 곳과 액수 : 은퇴수도자 기금 \$1000, 작은 예수회 \$400, 본당 빈첸시오회 \$394

◆ 레지오 마리아에 낮반 Pr. '하늘의 문' 창단

- 주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청: ☎490-3358 오루시아
- * 본당 프레스디움은 현재 수요일 저녁반 바다의 별, 순교자의 모후, 자비의 모후와 낮반 하늘의 별 등 넷입니다.

◆ 2008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08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장애인 후원 송년미사

- 일 시 : 12월28일(주일) 오후 4시30분
- 대 상 : 모든 가톨릭 장애인 교우 및 관심있는 교우
- 장 소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213)387-3301 (1137 Arapaho St. LA, CA 90006)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변혜경 율리아 920-5153 12/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12/27(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2/19(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데레사 618-8499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가디나 황제식당 719-8989 12/5(금) 오후 7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박명순 안나 750-0540 12/11(목)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12/12(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만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만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6(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12/5(금) 오후 3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의혜 세실리아 541-0700 12/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제관 세바스찬 748-8436 12/12(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2/12(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사람에게 간청하시는 하느님”

대림환에 꽃혀 있는 네 개의 초가 모두 빛을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은 ‘기다림과 준비’이다. 두 번째의 이름은 ‘회개의 세례’이고, 세 번째 장밋빛 촛불은 ‘기쁨과 희망’이며, 오늘 밝힌 네 번째 흰색 촛불의 이름은 ‘간청과 순명’이다. 루카복음은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예고의 서막(序幕)이다. 요한의 탄생예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탄생예고 때문에 존재한다. 선구자는 선구자 다음에 도래하는 메시아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서막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본막(本幕)의 준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과도 같다. 요한의 탄생예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세상에 ‘새로운 무엇’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예고는 ‘시작된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다. 두 개의 탄생예고를 비교해 본다면 그 과정을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카는 요한의 탄생예고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예고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간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지 정확히 여섯 달째 되는 때였다. 이는 새로운 무엇이 인간 세상에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때이다. 이제는 시작된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때이다. 장소는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이다. 세례자 요한의 경우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도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지만, 여기는 변두리 어느 한 마을이다. 즈카르야는 분향을 위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곳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지만,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보내어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는다. 즈카르야는 천사의 인사도 없이 바로 메시지를 전해 듣는다. 그러나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천사의 인사를 받고 난 다음 메시지를 전해 듣는다. 놀라기는 둘 다 마찬가지였다. 즈카르야의 경우는 이미 늙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고, 마리아의 경우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로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즈카르야는 의심이 앞서 믿을만한 표징을 요구했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묻는다. 즈카르야는 불신(不信)의 대가로 병어리가 되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엄청난 메시지를 겸손과 순명으로 수용한다. 그 순간 예수는 이미 마리아 안에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 예수는 사상 초유(初有)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육(肉)을 취하게 된다.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설(說)이 구구하다. 동정녀 잉태는 분명 우리 가톨릭교회의 ‘사도신경’ 안에 자리 잡은 신앙조목이다. 신앙조목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잉태를 믿는다, 또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정녀 잉태에 대한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 신앙의 조목이 사실사(事實史)인지 의미사(意味史)인지에 대한 구별이다. 이 구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다. 이는 이성과 감성, 철학과 신화, 로고스와 미토스가 동시에 인간정신세계에 속해있는 것과도 같다. 동정녀 잉태가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건의 한 편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사건은 다른 한 편은 아직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동정녀 잉태의 문제를 인간의 측면에서 해결하려 들면,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다. 동정녀 잉태는 세상 안에 통상 존재하는 수백만 잉태 중의 하나가 아니다. 남녀의 관계를 통한 생물학적 잉태만을 정상적으로 인정하는 세상의 눈은 동정녀 잉태를 생물학적 이변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하느님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되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마리아의 수용에 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육(肉)을 취하는 길이며, 육을 취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 관계를 배제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스스로 마리아를 찾아가 동의를 구하셨고, 마리아의 동정성을 겸손과 순명으로 받으신 것이다. 주님의 성탄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사건이다. 우리 안에 인간이 되시고자 간청을 넣으러 오시는 사건이다. 인간이 되시려는 하느님의 간청에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드려 하느님의 간곡한 청에 응답을 드리겠는가?

◆박상대 마르코 주임신부